

번호 II-16

제 목	국문	외래환자에서 금연 성공의 결정요인			
	영문	Predictors of smoking cessation in out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장락 ¹⁾ , 홍대용 ¹⁾ , 장정순 ²⁾ 1)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2) 경상의대 내과학교실			
	영문	JR Kim ¹⁾ , DY Hong ¹⁾ , JS Jang ²⁾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Gyeongsa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Gyeongsang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역 학 (○)		전 공 의 ()		포스터 (○)
환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 년 10 월				
<p>1. 연구 목적</p> <p>흡연은 우리 사회의 질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중요한 단일의 예방 가능한 원인이다. 흡연을 하던 사람도 금연을 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망률이 낮아지고, 질병의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p> <p>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접근법 중, 의사가 진료실에서 하는 금연치료는 환자들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건강에 관한 의사의 권고를 중요시하므로 그 효과가 크다. 의료인들이 환자 개인마다 더 적절한 금연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래 흡연 환자들에서 금연 성공의 결정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p> <p>알려진 금연성공의 결정요인은 연령, 성,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 흡연 시작연령, 흡연 개피의 수, 과거의 흡연 시도회수, 금연 성공에 대한 확신의 정도 및 니코틴 신체 의존도를 포함하는 흡연력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래 환자들에서 금연 성공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금연 치료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도되었다.</p> <p>2. 연구 방법</p> <p>1) 연구대상자</p> <p>본 연구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 방법 개발과 그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임상 시험 연구의 부차적 연구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2000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경상대학교 내과 외래환자 중에서 의사 문진 결과 하루 한 개피 이상 흡연을 하고, 연구에 동의하여 참여한 한 401명이었다. 이들은 고정무작위법(fixed randomization) 방법에 따라 한 달내의 금연의지 유무, 한 달내 입원 예정 여부, 도우미 별로 층화 배정하여 실험군(도움군)에 200명이, 대조군(의지군)에 201명이 배정되었다.</p>					

2) 설문조사 내용

전직 간호사인 금연 도우미의 직접 면접에 의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성,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 배우자와 어린 아이와의 동거 여부 등의 가족관계, 병원을 방문하게 한 질병의 종류 등을 측정하였다. 금연성공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자기효능(self-efficacy) 척도로, 니코틴 신체의존도는 FTND(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추적조사 및 금연성공의 확인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 대하여 연구참여후 최소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화로 그 동안 금연 시도 여부 및 현시점에서 금연중(금연 시도후 담배를 한 개피도 피우지 않음)인지 여부를 물었다. 현재 금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후 가까운 시일에 병원 외래에서 만나거나, 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Smokerlyzer®, Bedfont Scientific)로 호기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8 ppm 미만이고, 전화 면접이후에도 담배를 한 개피도 안 피웠다고 하는 경우에만 금연 성공으로 분류하였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금연 실패로 분류하였다.

4) 분석방법

금연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분석과 실험군(도우미군) 배정 여부를 혼란변수로 포함한 다변량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이때 추적불능인 7명의 연구대상자의 경우는 금연 실패로 간주하였다.

3. 연구 결과

- 1) 전체 대상자에서 5개월 후 금연성공률은 11.5%(46/401)였다.
- 2) 단순분석에서 5개월후 금연성공의 결정요인들은 FTND 점수, 한 달안에 금연할 의지, 한 달안의 입원 예정, 동거하는 배우자, 담배생각이 간절할 때의 자기효능 문항 점수였다.
- 3)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의 전진적 단계선택에서 선정된 금연성공의 결정요인들은 FTND 점수(점수가 0인 경우가 1이상인 경우에 비해 금연성공의 OR=4.08(95% CI:1.40-11.95), 한 달안에 금연할 의지 유무(있는 경우 OR=3.08(95% CI: 1.32-7.20)), 한 달안의 입원 예정 유무(입원예정인 경우 OR=2.73(95% CI:0.98-7.60)), 동거하는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OR=6.90(95% CI:0.92-52.05)이었다.

4. 고찰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서비스 제공시 이와 같은 금연성공의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본인의 한달 이내 금연의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접근이 필요하다. 추후 우리나라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